

사람이 텅텅이로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29면에서 계속

는 거지 그게 내버려두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공심으로 공체로서 공용을 하시라 이겁니다. 공용으로 공식을 하시라. 우리가 전부 사는 게 일제 만물만생이다 공생이 아닙니까? 아니, 작게 보시면 여러분의 몸체 속에서도 공생하고 있죠. 그리고 공체죠. 내가 봤다고 나 혼자 볼 수 있나? 여기의 생명들이 다 뒷받침을 해 주니까 보는 거죠. 한 군데만 무너져도 그냥 쓰러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일들이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에 지금 그렇다 얘기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가는 길에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뚜벅뚜벅 갈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데 정신계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대처해 나가고, 보이는 데서는 당신네들 몸으로, 보이는 육체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걸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데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세균 하나가 악성이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죽든한다면 그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하계끔 돼 있는 게 모두 공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둘 아니면 대처하거든요. 내쫓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기묘하고 광대무변하던 얘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변경이 돼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립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 여러분이 때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 놓고 이거 안된다고 팔팔팔 뛰는 거예요. 굶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요. 아프다고 그러고요.

이 몸뚱이는 넉넉하게 그냥 자기 그냥 가는 대로 가게 내버려두고 그 주인공하고만 하세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 봐도 병만 나고 쓰러지게 되니 소용없어요. 이 주인공을 하나 붙들면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붙잡을 수가 있죠. 또 주인공을 믿고 나가는 데는 급하면은 저런, 하다못해 그 녹암주나무라든가 이런저런 저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한나무 한 그루만 가져도 그 이파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파리 숫자대로 만약에 영혼이 한데 합쳐진다면, 그 이파리 하나마다 영혼이 돼서 다 합쳐 준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얘가 있죠. 옛날얘기 책입니다. 전에 나아주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박 부인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얘! 박 부인은 이 세상에 아주 못나서 못하게 태어나서 그냥 시집을 갔는데 장군인 남편이 붙들려서 갇혀 있

니 어떡하면 좋으냐? 그리고 인제 너희 집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는 어떡하겠느냐?” 하고, 그래서 박 부인이 그렇게 못났는데 그냥 백마를 타고 그냥, 이진 앞뒤를 끊어 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그냥 남북을 하고 말을 타고 가서 그냥 포위된 남편을 꺼내 주고선 그 남편이 알까 봐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급할 때마다 그렇게 어느 장군이 와서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 장군이 이거 오기만 오면 한번 누군지 쫓아가 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와서 포위가 된 거를 꺼내 주고선 그냥 뭐 비호같이 달아나가거든요. 그래서 비호같이 또 날째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벗지 못한 채 그냥 붙들린 거죠. 못났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그 방엘 안 들어 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봤으니까 그때야 고개를 푹 숙고 “장군이 당신이구료.” 하고선 “당신은 보통 그냥 영예 대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 했지?” 하

그 습이,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관습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게 탈이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떡하. 그까짓 거 어떻게 들어오든지, 죽든 지 살든지 그까짓 거 내팽개치고 하는 건데 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오?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김장땀 데 그릇이 없어서, 내가 그 말을 가끔 해요. 그릇이 없어서 이런 다라도 하나 없거든요. 항아리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에 뭐 처음 여기 와서 신도들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한생각을 내기를 ‘야, 김치는 해 먹어야 될 텐데 다라가 없고 전부 그릇이 없잖아. 항아리도 없고, 알아서, 당신 알아서 해!’ 이리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거 여러분이 만약에 배추 뽑아서 놓고 그런 지경이 됐으면 아등바등했을 테지만 나는 김치를 못하든 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

통하지 않는다는 얘이죠. 그래서 ‘너 알아서 하라.’ 고 그랬죠. 우리가 돈을 쌓아 두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우린 항상 텅텅이로 살아요. 텅텅이로! 텅텅이 아세요? 허허허, 사람이 텅텅이로 살면은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기의 관계는 어떤지요
문) 요즘은 제 친구의 권유로 기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마음과 기의 관계는 어떤지요?

답) 이거 보세요. 기는 마음에 따라서, 그건 따라지예요. 기가. 마음의 따라지. 그건 마음 먹기에 달렸습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곤하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일어날 기운도 없고 그럴 때에 ‘아이, 의욕이 나지 않고 왜 이렇게 기가 푹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벌떡 일어나면은 그냥 의욕이 생기고 그냥 기가 생기는 거죠. 기라는 것은 이름이예요. 기운이라고

를 하루 한 번씩이라도 먹는다. 그런 때만. 그 시골 보고 애송 때 그러면은 그게 벌충이 되죠.

안에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에서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 가지고 집이 무겁게만 되니까, 기를 성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거죽에서라도 그렇게 먹어서 그때를 매꾸어야 이 소립니다. 이것이 모두가 지혜고 아량이예요. 기가, 지금 그 웃는 얼굴에도 기가 있어. 기는 떠서 오는 게 아니고 떠서 생기는 것도 아니예요. 저 나무가 뭐 내가 너를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뿌리니까 그냥 무조건 저 지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흡수해서 그냥 뿌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렇듯이 또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거를 믿고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은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맥 동맥이 들어가듯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이름을 누누이 생각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꼽 밑으로 해서 기를 들인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를 모으기만 했지, 무당이 귀신을 몰아낸 놚기 내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일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기를 모아만 놚지 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너 무 몸이 부실하고 그러니까는 그 기법으로서 몸을 풀기 위해서 가르친 거지, 그것이 그냥 기에다가 착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예요. 몸이 짜뿌둥하고 아프면은 그렇게 해서와 짝 풀었지 그걸 넣어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울이 있으면은 전부 그 울 안에 있듯이, 한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써 다 대처할 수 있는 거지, 기를 왜 미리 참고 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만 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 가지고서는 외려 병을 더 얻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먹을 때에 무슨 그릇에다가 담아서 먹고 그릇을 항상 씻어서 치우지 않습니까. 고 다음에 또 먹을 때에 또 그 그릇을 꺼내서 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릇에다가 항상 담아 놓으면은 그 그릇을 나중에 무엇을 담으려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모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급하면은 저절로 기가 다 생기게 돼 있으니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가 생기게 돼 있어. 자동적이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봤자요. 뭐,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탄지탄하고, 기가 없으니까 기를 넣어지 어찌지 하면은 ‘허, 너 실컷 해 봐라.’ 속에서 그럴 겁니다. 아마, ‘네가 너라고 이렇게 자청해서 어떤법적인데 내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 봐라.’ 그리고 자기 참자기는 아마 등한시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왜 마음대로 못하십니까.

들어오는 대로 죽든지 살든지 그까짓 거 내팽개쳐 버린다면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면서, 그 사람도 그런 장군으로서 아마 폭이 넓었던 모양이죠. 그날부터 그 방엘 들어가니까 그 얼굴 모양이 아주 우스웠었는데 그냥 하얗게 다 그냥 탄생을 했더라.

또 한 번은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이 초당 그 언저리에 전부 저런 향나무를 심어서 울타리가 됐는데 급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부인이 그 녹암주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전부 그냥 군사를 만든 거예요. 저쪽에서는 전부 군사로 보이게끔요. 그러니까 거기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후퇴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쪽에 군사가 많으니까. 이게 부처님 법에서는 거짓이 아니지만 여러분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절 말이라고 하나 이럴 수도 있고, 저저 할 말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허허. 그러나 그것이 실지라니까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99%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런 것이 뭐 줄 아세요? 99%. 그거는 왜냐하면 마음 하나만 까딱 하면은 100%가 된다는 얘이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사람이라 하면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자격이 100% 다 있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그렇게 수없이 살아오면

요, 그 김치를 못하면 어땡고 하면 어땡습니까?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거 하나까 아, 그날 저녁에 밤에 말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청량리에서 사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별안간에 그냥 여길 오고 싶더라는 거죠. 별안간에 오고 싶은데 뭐 잠장 때 그릇도 없을 게다 그러고 다라를 그냥 큰 거 댓 개를 사고 항아리 뭐 이런 거를 주근주근, 지금 시대엔 항아리 왜 잘 쓰지 않잖아? 그 집도 그냥 항아리 다섯 개 있는 걸 다 싣고 온 거예요. 큰 거를. 그런데다가 쌀 또 두 가마니 싣고. 그래서 밤중에 웅얼래 내가 그랬어요. ‘허 참! 있긴 있구먼.’ 허허. 있긴 있구먼.

그래 지금 우리 저기 울산에 집을 짓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근데 신도들은 하나도 생각조차도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면 할 거고 없다면 못할 거니까 그거 1년이 간들 어땡고 2년이 간들 어땡고 10년이 간들 어땡고 100년이 간들 어땡고 이겁니다. 꼭 지으라고 너의 피리표 붙여 놓은 게 아니잖느냐.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 거고 안 계시다면 안 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네 자성불이다 이겁니다. 자성불이 있어야 모두 통하는 거지 자성불이 없으면

해도 되고, 기운. 그런데 이거는 기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온통 욕심이 많아 가지고 뭐, 단 전호흡을 해서 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몽통 아단을 해 가지고, 정수리로 화가 미치고 귀로 화가 미치고 등으로 화가 미치고, 온 몸 똥으로 화가 미쳐서 병들이 나 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슬슬 일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기가 뭐니까.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가고 핏줄이 잘 돌아가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따라지죠.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리예요. 그것도. 전 후사가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차가 하나 온행을 하려면 바퀴를 쫓고 중심과 엔진이 없으면 아예 그건 차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차가 굴러가는 것도? 그런데다가 기를 떨어지지 않게 기를 넣으면 되고 말입니다. 그게 기름과 같은 거예요. 아, 내 몸뚱이가 차가 기름이 없게 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그렇게 하고, 또 이 공부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끼고 그냥 무슨 일 할 때 너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걸으려는 종합비타민 하나 먹는다. 또 간장약이 피로회복제니까 두 개

마하연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인도

-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살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렉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MAI 미얀마 항공 취항 기념 단 한번의 기회

- ▶ 만달레이 / 양곤 5일 10월 26일 **95만원**
-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10월 28일 **특가 249만원 → 169만원**
- ▶ 만달레이 / 바간 / 양곤 5일 10월 27일 **105만원**

- 국적기 직항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블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풀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 구화산 & 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 ▶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 ▶ 북유럽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 ▶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 ▶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 ▶ 미서부 7일 **요금문의**
- ▶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a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



- ① 모든경비 포함
-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 ③ 티어행사 비교 필수
- ④ 2년역 여행사 보험 가입